전남도, J프로젝트 이름 놓고 고민

디자인진흥원, 솔라시도·블루마루·해솔리아·오 씨티 4개 압축

道, 실국 의견 취합 못해 브랜드 네임 결정 실패… 10월까지 확정

전남도가 핵심 현안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의 브랜드 이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49.0㎢(1482만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레저 도시에 걸맞는 '신선한' 이름을 짓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1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 자리에서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최종 발굴한 브랜드 네임은 '솔라시도(SolarSea.Do)','블루마루(Blue Maru)','해솔리아(Heasolia), '오'씨티(O'City)'등 4개. 지난 4월 사업에 착수, 500여개의 명칭 후보를 모았고 또다시 수십 번 회의를 거쳐 10개 후보군을 압축한 뒤 전남도 공무원(700명)과 디자인진흥원 전문가(80명), J프로젝트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뽑은 것이다.

'솔라시도'는 젊음과 휴식이 있는 즐거운 도시라는 의미를 담았고 '블루마루'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고품격 휴양 도시의 이미지를 연상시켜 채택됐다. '오'시티'는 탄성이 터지게 좋은 레저도시라는 의미를 담아냈고 해솔리아는 맑은 바다와 푸른 태양 등이 어우러진 복합 휴양도시를 떠올려 채택됐다.

하지만 이날 보고회에서 브랜드 네임을 결정 짓는데는 실패했다. 실·국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담당 부서는 보고회에 앞서 후보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을 요청했으나 기획조정실·경제산업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등 상당수 부서가 '의견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낸 게 가장 큰 요인이다.

박 지사는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실국을 일일이 거명하며 "전 부서가 다 관련 있는 일인데도, 도움 줄 생각을 해야지, 참여를 안하면 되느냐, 다른 부서 일이라고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느냐. 지혜를 모아 동참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가만히 보니 한심해서 그런다"고도 했다.

최근 브랜드 네이밍이 시장에서 기업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라는 박지사의 의중도 작용했다. 박 지사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J프로젝트 브랜드 네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까지 브랜드 네임 및 관련 디자인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색깔있는 음식만들기' 강좌 광주 북구 두암보건지소는 18일 북구장애인복지회 직업재활센터 교육장에서 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색깔있는 음식만들기' 강좌를 열었다. 장애인들과 영양사가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방사광 가속기 광주 유치 '긍정적'

김도연 과기위원장, 김영진 의원과 면담서 협조 의사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이 광주의 방사광 가속기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18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서구 을)은 지난달 29일 김도연 위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광주시의 방사광 가속기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이 18일 전화통화에서 "이달 말까지 방사광 가속기 설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 소요 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방사광 가속기의 유치 지역을 광주로 한다는 전제 아래, 국회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한 과학벨트 심사로 같은 분원인 대구는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광주는 고작 6000억원만 배정됐다"며 "삼각 과학벨트가 국가균형발전과 거점별 특화 경쟁에 있는 만큼 광주분원에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방사능 오염 세균으로 막을 수 있다

광주과기원 허호길 교수팀 슈와넬라균 우라늄 분해 발견

세균을 이용해 방사능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허호길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팀이 슈와넬라(Shewanella)균이 물에 녹은 '우라늄 6가 이온'을 자신의 껍질에 결정 형태로 붙여 나노미터(㎚ ; 10억분의 1m)수준의 가는 실(나노와이어)을 만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물에 녹은 상태의 방사성 물질 우라늄을 결정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균을 이용해 순도 높은 우라늄을 다시 얻을 수도 있다.

슈와넬라균은 흙과 물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박테리아로, 주위에 산소가 부족할 때 우라늄·철 등의 이온을 이용해 전자를 교환하며 호흡하는 특성이 있다.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산도 등 일정 조건을 맞춰주자 슈와넬라균이 호흡에 이용된 '우라늄 6가 이온'이 물에 녹지 않는 '우라늄 4가 이온'으로 바뀌어 슈와넬라균 껍질에 남고, '우라늄 4가 이온'이 일종의 씨앗 역할을 해 '우라늄 6가 이온'으로 이뤄진 나노와이어가 만들어졌다.

'우라늄 4가 이온'을 중심으로 주위 '우라늄 6가 이온'들이 결정 형태로 길게 실 모양으로 달라붙은 것이다.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 쉽게 산소 등과 만나 우라늄 이온으로 바뀌는데, 우라늄 6가 이온의 경우 물에 녹는 수용성인 반면 4가 이온은 물에 녹지 않는다. 우라늄 6가 이온을 물에 녹지 않는 실 모양의 결정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허호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미생물을 통해 방사능 오염을 막거나 친환경 공정을 거쳐 우라늄을 생산 또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부-전남, J프로젝트 실타래 풀어야"

민주 전남도당

민주당 전남도당은 18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과거 정부가 시작한 J프로젝트 사업은 낙후한 전남을 일으켜 세울 돌파구이자 희망"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이 한데 모여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정부와 관련기관은 야속할 정도로 팔짱만 끼고 있다"며 "정부는 J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방관자 처지에서 탈피해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간척지 양도 양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주선하겠다고 한 만큼 전남도는 지금까지와 다른 더욱 큰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기필코 사업이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운영 전문가 포럼

오늘 전남대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오는 19일 전남대 인문대에서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 운영 방안 및 콘텐츠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포럼을 개최한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 보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되는 기념 공간으로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아시아와 연대·공유·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9일 오후 2시 전남대 인문대학 이을호강의실에서 개최되는 2차 포럼에서는 박신희 교수(경희대)와 최호근 연구교수(고려대)가 발제를 맡고, 임정희 겸임교수(연세대), 정경운 교수(전남대), 주정민 교수(전남대), 조성윤 교수(제주대) 등이 토론을 벌인다.

향후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운영 방안과 콘텐츠에 대한 의견 수렴은 포럼(5회), 시민 토론회(1회), 국제 워크숍(1회) 등이 예정돼 있으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李대통령 8·15 경축사 화두는 '화합'

야·국민과 소통… 박근혜와 관계개선 포함

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 화두로 화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국민이 하나가 돼 성공한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의 기운을 살리기 위해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 통합과 화합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경축사 키워드도 화합을 내세우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부터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 수석실 중심으로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메시지를 논의하는 등 원고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화합을 이끌어 낸다는 차원에서 19일에는 5부 요인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대표까지도 만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국민과 소통의 문제"라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관계 개선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복절을 앞두고 각 종교 단체 지도자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의 인사를 만나는 등 '동반화합의 큰 행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청와대는 특히 강원 평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